

#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상호 (단원고등학교 영어교사)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업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 글은 논문에 대한 요약이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생략하고 문맥의 흐름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면에서 특별한 장애가 없는데도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산만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화장을 하거나 책이나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고 낙서하는 학생들이 많고, 교사들이 주의를 줘도 아랑곳없이 엎드려 잠을 자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점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교실에 앉아 있거나, 의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처럼 아이의 행동이 부정적이고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일반계 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학교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개 학습 부진이나 행동 장애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2016년 학교 부적응, 가정 사정,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만 3천641명으로 재적 학생의 0.87%에 이르며, 학교 폭력, 선도 조치,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포함하면 위기 학생 수는 더 많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업 중단 속려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해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적응은 청소년들의 개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는 힘겨운 존재일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인 파커파머조차도 수도자처럼 조용히 있는 학생으로 인해 자신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감을 느끼거나 토론을 망쳐버리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수업 부적응,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들에게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힘든 상황이다. 기독교교육이 이와 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학교적응의 문제는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특

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 중 수업 적응은 더욱 그렇다. 학업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이용자의 25.4%는 학업과 진로 문제로 센터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의 고교 생활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시험 점수에 얽매이게 되고, 성적 수준에 관계없이 객관적, 주관적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적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의 문제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경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해진다. 학업은 분명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자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은 개인에게나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적된 학습의 어려움은 학업 장면에서 청소년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였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업 상황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무기력을 학습하고, 어떤 이들은 더욱 노력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성적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자아탄력성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높은 위험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앙이 무기력이나 학교적응에 실제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신앙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영적 성숙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으로, 종교정향과 함께 스트레스, 불행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주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도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특히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양적, 질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앙 발달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은 자명하다. 신앙 발달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생활하는 신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종교적 가르침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이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급격한 발달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종교적 의심, 교회학교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여러 경험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이 줄어가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개신교도 상황은 비슷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각 교회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약 45-50% 교회학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가톨릭에서의 분석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라고 한다. 개신교에서도 청소년을 포함해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로 '가나안 신자'('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이들)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교회에 대한 거부는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표준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어서 그럴수도 있다. 이외에도 최근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성경과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즉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표준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신앙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신앙과 관련하여 종교 정향과 종교 대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종교적 의문, 회의, 걱정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찾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정향은 종교 성향, 종교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종교적 방향을 의미한다. 개인의 종교성은 '개인들이 종교적인 정도' 또는 '종교적 성향의 정도'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신념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또 종교마다 서로 다른 조직, 관

습, 관행, 신념 구조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으로, 종교정향과 함께 스트레스, 불행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주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종교 대처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 자기주도형(self-direction style)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신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며, 책임 전가형(deferring style)은 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문제 해결 책임을 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공협형(collaborative style)은 문제 해결의 책임이 본인과 신에게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처했을 때 신의 뜻을 찾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정향, 종교 대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학습된 무기력,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종교정향과 종교 대처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으며 연구의 양도 많지 않다. 따라서 종교정향과 종교 대처는 앞으로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함께 기독교교육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필자는 기독교 신앙, 종교 활동,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학교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기독교 고등학교의 청소년들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학습된 무기력, 학교적응 간 경로상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기독교 고등학교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종교 활동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적 성숙과 종교 성향이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독교학교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독교학교에 있는 정기적인 채플, 학급 경건회, 기도회, 절기 예배, 행사 관련 예배 의식 등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지,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두 학교 간 차이가 없는 것은 해당 학년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입학 때도 그러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앙인은 신앙 성숙을 위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신앙문제에 있어서도 또래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나눔을 하는 교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글 | 박상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육학석사,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 현재 단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중에 있다.

#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김성수 (전 고신대학교 총장)



오늘날 기독교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의 빈약한 세계관적 기초, 교권의 위협, 그리고 빈약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성과 특성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독교대학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고

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재원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양성에 우선적일 수밖에 없으니 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대학은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독교대학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